

KOBA 2018 1층 Hall A 조명 관람기

‘LED 시장, 퍼플 오션(Purple Ocean)*이 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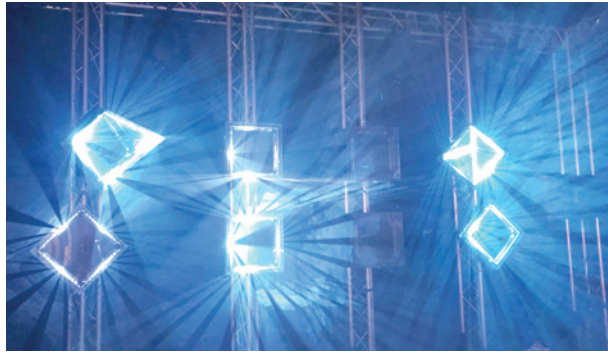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KOBAS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새로움을 안겨 주었던 행사였다. 전년도에도 조명 광원의 전시 비율에서 LED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필라멘트 램프를 이용한 기구 전시로 나름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올해 작년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통적인 램프 타입의 조명기구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LED 광원을 이용한 제품이 모든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LED는 트렌드를 넘어 이미 기존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았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도 기존광원 대비 LED의 광원은 발전 및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LED 시장을 볼 때 완벽을 추구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아마 전통적 필라멘트 타입 램프를 추억하며 그리워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LED 성능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광원에서는 개발하고 만들기 힘든 제품들이었다. KOBAS 2018을 돌아보면서 이런 개발을 통해 독점함과 새로움을 주는 제품 위주로 독자들에게 소개하겠다. 이러한 LED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과연 방송 조명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장비는 IVL LIGHTING (LAZER) 사(社)의 레이저 라이팅 제품이다. 조명광원 소스는 10W(RED : 2.4W / GREEN : 2W / BLUE : 6.6W) BEAM RANGE는 360° RGBW COLOR SYSTEM으로 다채로운 컬러 혼합이 가능하다. 전체 사용 용량은

*퍼플오션(Purple Ocean) : 포화 상태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기존의 시장(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시장(블루오션)을 만든다는 의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IVL 레이저 데모관 운용 모습

대당 150W이며, 직접 데모관을 운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선보이고 있었다.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피라미드 형태의 렌즈를 부착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연출 또한 가능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쇼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자 할 때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LED 제품은 명불허전 독일 ARRI 사(社) 제품군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영화 및 각종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며, 그 성능과 퀄리티를 이미 입증받은 제품이기도 하다.



스카이 패널에 액세서리를 부착한 형태



스카이패널 여러 대를 연결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스카이 패널은 다양한 기능으로도 유명하다. 필터 제조사와 협력하여 조명기구 안에 필터를 선택만 하면 그에 맞는 필터 색감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준다. 또한 여러 이펙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달리는 장면을 조명기구 안에서 선택하여 자연스러운 조명연출을 할 수가 있으며, 드라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함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빛을 더 섬세하고 다양하게 연출하도록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다.



리모트를 부착한 ROBE 사의 BMFL



다음으로는 체코 ROBE 사(社)의 BMFL이다. 기존 BMFL 제품에 리모트 컨트롤을 부착하여 무빙라이트를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몇 가지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기능으로 포커스, 조리개, 컬러, 줌 등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외국 공연장에서 사용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기존 백-핀(Back-pin) 대신에 적은 공간과 무게, 그리고 가벼운 용량으로 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알라딘 3단 대형 플렉시블 평판 라이트



알라딘 소형 플렉시블 평판 라이트

알라딘 사(社)는 기존 제품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기존 몇몇 조명제조사 들은 얇은 판 형태의 LED 제품군을 출시한바 있다. 알라딘 제품도 그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유연성이나 응용성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실제 알라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현장에서의 요구(Need)와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품화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알라딘 제품이 현재 드라마 및 제작현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노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의 성능이 여러 메이저 제조사와도 견줄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성제품을 3단으로 부착하여 전면 대형 패널라이트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드라마 및 CF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KOBA에서 철저한(?) 보안을 두고 소개한 Grand MA 사(社)의 조명 콘솔 Grand MA 3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한다.

이미 많은 국내 조명감독 및 조명 오퍼레이터들 사이에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이러하기에 아무래도 이번 Grand MA 3콘솔 한국 런칭은 많은 콘솔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별히 콘솔관을 별도로 운용하여 전담 직원들이 콘솔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하여 세미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물론 다른 변화 및 기능을 일일이 소개해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는 아마도 콘솔 자체에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Grand MA 3 Full Size 콘솔 모습



Grand MA 3 XT 콘솔 3D 시뮬레이션 모습

지금 조명장비시장은 그야말로 들리지 않는 총성이 오고 가는 전쟁터라고 비유하고 싶다. 조명 광원의 변화를 대비한 LED 제품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된 레드오션이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하게 될까? 필자가 큰 타이틀로 'LED가 퍼플 오션이 될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번 KOBA 2018에서 창조와 혁신, 새로움의 개발로 살아남으려는 LED 시장의 노력을 체감하며, 볼 수 있었다.

방송가에서 조명의 발전이 어디까지일까? 미래는 있을까? 작금의 현실에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이다.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까? 나의 답은 간단하다. 🎧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Hall A의 조명 전시 부스



동서테크놀로지



아트텍라이팅



루스케이프/엘에스미디어



씨앤씨라이트웨이



한진시스템



비전라이트